

희망의 시대

The Era of Hope

이창율 |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위원장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매일 뽐내는 것이 취미인 왕이 있었다. 왕은 매일 화려한 장식을 몸에 두르고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밤낮으로 파티를 즐기곤 했다. 왕은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이 처리해야 할 나라와 백성의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화려한 생활에만 푹 빠져 지냈다. 이런 왕을 지켜보던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이 매일 들여다보던 거울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밖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큰 창을 달았다. 왕은 평소와 같이 거울을 찾다가 거울이 놓여 있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거리를 오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뒤지는 아이들과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노인들이 왕의 시야에 들어왔다. 고통 받는 백성의 모습을 직면한 왕은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왕은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를 벗고 백성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성격, 가치관, 연령, 감정, 직업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군인들은 제복을 입고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입는다.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신랑과 신부는 예복을 입는다. 총회는 회장과 임원들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도록 명하였다. 총회가 명한 옷을 입고 정관의 목적에 따라 회원들을 섬기라는 지위와 권위를 부여했다. 회원들의 어두움을 진단하여 빛을 발하라! 라는 빛의 옷을 입혀 특권까지 부여했다. 임원은 민생건축사들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다. 이 귀한 사명을 가슴에 품을 때만이 임기 후 회원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깨에 메는 계급장이 아니라면 순종으로 가슴에 품는 것은 회원에 대한 사랑이며 섬김이다. 회원들의 필요를 품을 때에 비로소 회원들의 가치관과 그 바람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회원들의 양극화현상이 날로 심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회원 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건축사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건기법에 의한 감리업체는 제도의 보장으로 그 부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설계시장은 감리시장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60% 이상을 텅핑으로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로부터 보장 받는 설계매출시장을 모든 회원이 공유 할 수 있는 「건축사연금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설문조사 이후 용역발주와 공청회를 거쳐 13년 2월 총회에 상정하여 모든 회원들의 뜻을 묻고자 준비 중인 추진위원들의 노고에 많은 아이디어와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교육과 건축사자기계발과정교육 및 실무를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우리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

드디어, 모든 건축사가 하나의 정관에 의해 치리되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민간부문의 보수대가를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적용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다. 필요에 의해 모든 건축사들은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할 것이다. 연금제도의 부활은 모든 건축사들의 희망이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안보, 민주, 경제, 복지의 화두에서 이제는 「희망」으로 사회가 창조되어가고 있는 시대이다. 제도가 정착되어 희망이 보여 질 때에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왕, 부유한 사람들과 날마다 연회를 즐기는 왕에게 복 받는 민초들은 찬사를 보내게 될 것이다. 📖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인 이창율 건축사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사과 부회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을 역임하였다.